

‘엘롯기 동맹’ 4강 싸움은 ‘투수 놀음’

<LG·롯데·KIA>



<KIA 양현종>



‘포스트 시즌’ 마지노선 4위 자리 두고 치열한 경쟁

롯데, 손민한 가세…선발 로테이션 원활 한발 앞서

KIA·LG, 선발·불펜 총체적 구멍 매경기 살얼음판

후반기에 접어든 프로야구에서 포스트시즌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SK가 선두 독주 체제를 갖추고 삼성과 두산이 안정권에 든 가운데 4위 롯데와 5위 LG, 6위 KIA가 각각 2.5경기 차이로 쟁탈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계속 함께 하위권에 머물면서 이른바 ‘엘롯기 동맹’이란 별명을 얻은 세 팀은 같은 한 장의 포스트시즌 티켓을 두고 혈투를 벌여야 한다.

셋 다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인 만큼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사상 첫 600만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의 흥행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42~43경기를 남겨두고 짧지 않은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만큼 역시 성패는 투수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안정적으로 경기를 소화해줄 투수진이 풍부한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롯데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7월 중순부터 송승준 등 선발진이 훈들리면서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LG나 KIA에 비하면 훈들립이 적은 편이다.

라이언 사도스키, 정원준, 송승준, 이재곤, 김수완 등이 꾸준히 선발로 나서주고 있는 만큼 손민한까지 가세하면서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6선발 체제까지 고려할 만큼 외형으로 단단한 전력을 갖췄다.

이용철 KBS 해설위원은 “선발 로테이션 이 꾸준히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는 것”이라며 “로이스터 감독이 시즌 막판 이재곤과 김수완 등을 선발뿐 아니라 중간으로도 나서는 ‘조커’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최근 트레이드로 네선에서 전천후 내야수 황재균을 데려온 것도 큰 힘이다. 주로 맡던 3루수 뿐 아니라 다양한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황재균이 가세하면서 수비 조직력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호시탐탐 역전을 노리는 KIA와 LG의 고민 역시 마운드에 있다.

지난해 6선발 체제를 고수하면서 막판 뒷심을 발휘해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KIA는 마운드에 구멍이 뚫리면서 6위까지 밀려났다.

에이스 윤석민이 손가락을 다쳐 시즌을 접었고, 지난해 공동 다행왕 아렐리노 로페즈는 구위가 많이 떨어진데다 운도 따르지 않아 1승8패에 그치고 있다.

손영민과 곽정철, 유풍훈 등 불펜진도 지난해 만큼 활약을 해주지 못하는데다 전반기 5선발로 활약했던 전태현마저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더욱 구석에 몰린 형국이다.

이용철 위원은 “양현종만 데리고 야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4강에 진입하면서 빨리 투수진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KIA는 지난해 홈런왕 김상현이 곧 복귀하는 만큼 탄선의 힘은 나아질 수 있지만 무너진 마운드가 다시 세워져야 타격도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LG의 고민은 더 크다. 원손 에이스 봉중근 외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 주는 선수가 거의 없어 매 경기가 살얼음판이다.

박종훈 LG 감독은 아래 쳐임 시작하는 자세로 선발진을 재정비해 후반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투수진이 박종훈 감독의 뜻에 부응해주는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선더베이 포트아서스티디움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청소년선수권 대회 B조 예선 3차전에서 한국의 1루수 하주석이 체코의 니비드 네비릴을 태그이웃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 양키스 떠나나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가 불펜 투수로 활약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박찬호(37)를 트레이드하고 한다는 소문이 나왔다. 스포츠진문채널 ESPN의 제이슨 스타크는 27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찬호의 아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스타크는 “박찬호가 지난 2

월 120만 달러에 양키스와 1년 계약을 했지만 25차례 구원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5.57을 기록했으며 거의 한 달을 부상자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키스가 박찬호를 트레이드할 때 대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서른일곱살 오른손 투수로서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찬호는 지난 19일 탑파바이 레이스와 홈경기에

서 3-3으로 맞선 5회 등판해 1%이닝 동안 삼진 2개

를 결들이며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9-5 승리를 이

글었다.

이승엽 야쿠르트行 솔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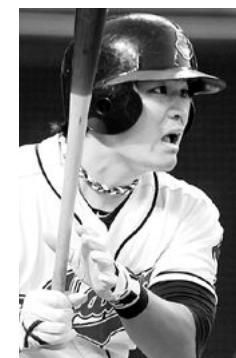
올해로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이 끝나는 이승엽(34)이 시즌 중 야쿠르트로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일본 섹션 신문 ‘닛칸 겐다이’는 27일 인터넷판에서 이세 다카오(65) 야쿠르트 타격 인스트럭터가 이승엽의 부활을 돋궜다며 한술밥을 먹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년과 2007년 요미우리 타격 코치로 이승엽을 지도한 이세 코치는 2007년부터는 3년간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에서 활약해 한국팬에게도 낯익은 지도자다.

이세 인스트럭터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요미우리가 비싼 연봉을 주고 이승엽을 기용하지 않는 건 안타깝다. 이승엽은 계속 내보내면 반드시 때리는 선수다. 시행착오 끝에 몇 차례 타격 자세를 바꿨지만 예전에 아주 좋았을 때 스윙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나와 함께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신수 팀 모범상 후보



엄지손가락 부상을 딛고 돌아온 한국인 메이저리그 타자 추신수(28)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실력과 성품을 두루 갖춘 선수에게 주는 ‘하트 앤 허슬’(Heart and Hustle) 상 후보에 올랐다.

2005년부터 이 상을 수여해 온 미국프로야구 은퇴선수 협회(MLBPA)는 27일(한국시간) 추신수가 클리블랜드 선수 중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트 앤 허슬’상은 미국프로야구 현역 선수 중 그라운드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펼칠 뿐만 아니라 야구에 대한 열정과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각 팀에서 정한 후보 중 한 명을 뽑아 11월에 시상한다.

추신수 외에 로이 할러데이(필라델피아)와 라이언 짐먼(워싱턴), 브렛 가드너(뉴욕 양키스)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한국, 체코 4-0 격파 8강 보인다

세계청소년야구 예선 2승1패

기변 조 1위에 오른다.

1회말 체코의 잇단 수비 실책 덕에 얻은 1사 1.2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2회 김호령의 중전 안타와 백세웅의 번트 안타로 만든 무사 2,3루 기회에서 김민욱이 희생 플라이를 날려 선취점을 올렸다. 이후 7회까지 좀처럼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킷기던 한국은 8회 다시 집중력을 발휘했다.

대타 강경학의 중전 안타에 이어 강진성이 몸에 맞는 볼로 걸어나가고 헤일까지 번트 안타를 만들어내 무사 만루 기회를 맞은 한국은 문우립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뽑았다.

김호령이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번트 안타를 쳐 만루 기회를 이어간 한국은 체코 투수가 연달아 폭투와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무너진 덕에 2점을 추가하며 승리를 결정지었다.

한국은 남은 쿠바, 파나마와 경기 중 한 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8강에 진출한다. 한국과 쿠바, 캐나다가 각각 파나마, 네덜란드, 체코 등 B조 약체팀과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쿠바를 누르면 조 2위를 확보하고 5점차 이상으로 이

기world@korea.com

*다음카페 : 월빙산악회

T.011-617-3898, 011-605-5034

● 8월 11일(수) ●

▲광주한빛산악회 전북 남원시 냐사골 8월11일(수) 7시50분 빠운데로리 출발(8:00 교원공제회관, 8:10 예술회관 후문 경유) *다음카페 : 빠운데로리

● 8월 18일(수) ●

▲광주한빛산악회 전북 진안군 명동 8월18일(수) 7시50분 빠운데로리 출발(8:00 교원공제회관, 8:10 예술회관 후문, 8:20 동광주아일구 경유) *다음카페 : 광주청룡산악회 T.011-646-3450, 011-646-2548

● 8월 12일(목) ●

▲e-조은산악회 충북 담양 제비봉, 육순봉, 구담봉(증주호) 8월12일(목) 7시50분 빠운데로리 출발(8:00 교원공제회관, 8:10 예술회관 후문, 8:20 동광주아일구 경유) *다음카페 : e-조은산악회 T.011-646-3450, 011-646-2548

● 8월 19일(목) ●

▲광주한빛산악회 경남 거창 우두산 8월19일(목) 7시50분 빠운데로리 출발(8:0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e-조은산악회 T.011-646-3450, 011-646-2548

● 8월 21일(토) ●

▲광주금당산악회 경북 봉화 청량산 8월21일(토) 5시 진원동 구해테마파크 출발(5:20 염주체육관, 5:30 한국병원, 5:40 문예회관 후문, 6:0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 T.011-615-2279, 010-4913-7897

● 8월 26일(목) ●

▲e-조은산악회 전남 광양 배운산~병암계곡 8월26일(목) 7시50분 염주체육관 진원동 구해테마파크 출발(8:10 염주체육관, 8:2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e-조은산악회 T.010-8591-0091

● 8월 27일(금) ●

▲광주한빛산악회 서산 광안리 해수욕장 8월27일(금) 7시50분 염주체육관 진원동 구해테마파크 출발(8:10 염주체육관, 8:2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광주한빛산악회(※우리산악회는 옵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010-4913-7897

● 8월 28일(토) ●

▲광주한빛산악회 경북 봉화 청량산 8월28일(토) 5시 진원동 구해테마파크 출발(5:20 염주체육관, 5:30 한국병원, 5:40 문예회관 후문, 6:0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광주금당산악회(※우리산악회는 옵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010-4913-7897

산행 안내

● 7월 29일(목) ●

▲e-조은산악회 경북 상주 속리산(화북능선) 7월29일(목) 7시 T.010-3131-3580

염주체육관 정문 출발(7:10 문예회관 후문, 7:20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 e-조은산악회 T.010-8591-0091

▲광주한빛산악회 전북 문진리(화북능선) 7월29일(목) 7시30분 출발(7:30 문예회관 후문 경유) *다음카페 : http://cafe.naver.com/hanall

(목) 7시30분 염주체육관 출발(7:30 문예회관 후문 경유) *다음카페 : http://cafe.naver.com/hanall

점, 8:10 알파우시점, 8:15 콜플러스, 동광주(경유) *다음카페 : 쿠비

카페 : 광주청룡산악회 T.016-630-0411, 010-5470-4521,

010-6778-1779

▲광주한국산악회 합천 가야산(민물상능선) 7월29일(목) 7시 T.011-615-2279, 010-4913-7897

분 염주체육관 출발(문예후문 경유) *다음카페 : 광주한국산악회

로터리(민물상능선 경유) *다음카페 :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옵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1-615-2279, 010-4913-7897

▲e-조은산악회 경북 가야산(민물상능선) 7월29일(목) 7시 T.010-3131-3580

염주체육관 출발(7:10 문예회관 후문 경유) *다음카페 : 광주한국산악회(※우리산악회는 옵주가무를 하지 않습니다.)

T.010-615-2279, 010-4913-7897

● 8월 1일(일) ●